

# 사슴의 繁殖과 管理

농촌진흥청  
수목연구소  
編輯室

## 1. 성숙(性成熟)과 번식적기(繁殖適期)

사슴은 조숙성(早熟性)이며 이른봄에 분만된 새끼사슴은 그 해 늦은 가을이면 발정(發情)이 가능한데, 발육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그후의 모체발육, 비유(泌乳), 번식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몸이 충분히 성숙치 않은 때에 교배(交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생후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번식에 공용해야 하는 것은 다른 가축동물과 같다. 이보다 일찍 공용하면 본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조로(早熟)하게 되어 공용연한을 단축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암사슴의 번식의 최성기는 4~6세이며, 6~8세까지도 번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혈통이 좋거나 능력이 우수하면 10세까지도 번식을 할 수 있다.

한편 숫사슴은 1년 6개월부터 번식에 사용할 수 있는데, 3~5세가 최적기이다. 그러나 능력이 있고 혈통이 좋으면 8세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 2. 번식계절

사슴은 계절적 다발정성(多發情性) 번식동물로 발정 지속 시간이 짧고 뇌하수체(腦下垂體)가 유기(誘起)됨으로써 발정이 시작된다.

사슴은 단일성 동물(單一性動物)로서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시기가 번식계절이고, 또

한 번식 계절은 일광, 기온, 사슴의 사료공급과 영양상태, 신경자극 및 기타 요인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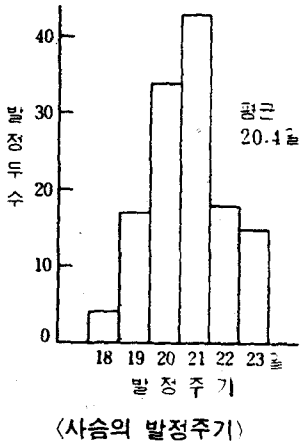
삼바사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슴은 8월 하순부터 12월 사이에 교배하게 되는데, 순록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교배하고, 꽃사슴이나 시카사슴, 그리고 붉은사슴 등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며, 돼지사슴이나 팰로우사슴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교배한다. 분만 시기는 각 품종의 임신 기간에 따라서 4월부터 7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암사슴이 수태(受胎)를 하려면 발정, 배란(排卵), 수정(受精), 착상(着床)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암사슴의 발정 시기를 보면, 어느 일정한 시기에 심하게 발정을 일으키는 주기성(週期性)이 있다. 이 때가 되면 임신하지 않은 사슴은 난소 호르몬 및 발정 호르몬·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성선자극(性腺刺戟)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러한 기능은 성선자극 호르몬이 성선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이 자극에 의해 분비된 호르몬이 다시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에 의한 것이다.

## 3. 발정(發情)

사슴의 발정 징후는 어린 사슴과 늙은 사슴의 경우, 어린 사슴은 약간 뚜렷하나 늙은 사슴은 거의 외부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번식 적기의 사슴은 그 징후가 비교적 뚜렷해서 식욕이 감퇴하고, 불안해 하며 자주 우는 소리를 내는 한편, 외음부(外陰部)는 빨개져서 약간 붓고 때때로 약간의 황색을 띤 질(膿)점액을 분비하며, 암컷끼리 서로 등에 오르는가 하면 수사슴의 교미를 허용한다.



수놈의 경우 음경(陰莖)이 발기(勃起)하면 허리를 굽히고 소리를 지르며 약 5분간 정신없이 흥분상태에 돌입한다.

사슴의 발정 주기(週期)는 14일부터 23일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다.

삼바사슴은 연중 계속적으로 발정이 있고, 따라서 배란이 되므로 언제든지 번식이 가능하지만 그밖의 품종은 8월 중순부터 3월까지 발정이 있다. 이때 암사슴의 발정 개시 시기는 사슴의 번식 계절인 가을 무렵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이른봄에 생초(生草)를 많이 섭취하고, 시원한 여름이 있는 지역에서 자란 사슴은 1주일 정도 일찍 발정이 오기도 한다.

사슴의 발정 지속 시간은 발정기인 가을

철은 20~60시간으로 평균 40시간이고, 봄·여름의 발정 지속 시간은 24시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에 수태되지 않았을 경우는 11~12일 후에 다음 발정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1~3회 경과되면 다음 번식 계절인 10~12개월 후에 발정이 있게 된다.

#### 4. 교배(交配)

교배는 난자(卵子)와 정자(精子)가 결합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난자의 배란과 정자의 수명을 충분히 배려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교배라 할 수 있다. 사슴의 배란 시간은 발정 개시 후 35~37시간 무렵이다.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는 것은 일러서 30분이고, 많은 정자가 모이게 되는 것은 5~6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발정 개시 후 1일이나 1일 반이 교배의 적기로 보아도 된다. 그러나 배란 시간에는 개체가 있으므로 아침에 발정을 발견했을 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녁때와 이튿날 아침의 2차 교배를 하는 편이 수태가 더욱 확실해진다.

교배는 암사슴과 수사슴을 동거시키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고 단시간으로 끝나게 된다. 수사슴의 번식능력이 임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기형이나 아주 늦은 분만 등으로 인한 열등한 새끼사슴이 불량 수사슴으로 인해 나타나므로 교미시작기에 수사슴의 정액을 검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인공 수정일 경우는 정자의 생존 기간이 단축하므로 그 주입 적기에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수사슴은 자주 음경으로부터 정액을 뽐얹게 사정(射精)할 정도로 성욕은 지극히 왕성하며 다두수(多頭數)의 교배도 견디지만,

하루의 교배 두수는 1마리가 적당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2마리까지 시켜도 된다. 이럴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고, 한 번식기에는 50여 마리가 적당하고, 어린 수사슴은 20여 마리가 적당하다.

교배 방법에는 자연 교배(自然交配)와 인공 교배(人工交配)가 있다. 자연 교배는 선발된 종록(種鹿)이 발정된 암사슴과 교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컷은 암컷을 대하면 음부의 냄새를 맡는 등 여러 가지 동작으로 좋다는 표시를 한다. 이 때 암컷은 수컷을 피하는 수도 있으나 교배적기일 때는 반항 없이 응한다. 사정할 때의 수컷의 모습은 허리를 앞으로 힘있게 밀며 등을 세운다. 수컷은 등을 구부리고 수축시켰다가 사정한다.

인공 교배는 인공 질법(人工膣法)에 의한 정액 채취와 희석(稀釋)을 해서 암사슴의 자궁 안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채취한 정액은 적당한 액체로 희석하여 다수의 암컷에 분할 주입되는데 정액희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정액(原精液)의 양을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 ② 성상(性狀)이 불량한 정액을 보정(補正)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정자의 생존, 수정능력의 연장, 보존을 위해서이다.

인공수정은 자연 교배에서는 정자의 자궁 내진입(子宮內進入)이 방해될 만한 암컷의 이상(異常), 질환에 대해 정액을 직접 주입하여 수태시킬 수가 있다.

사슴의 순화성(가축화가 되는 습성)이 높아서 정액 채취 및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순한 사슴을 선발함은 사슴 육종(育

種)의 근본문제가 된다. 자연 교배를 하거나 인공수정으로 잡종 번식도 시험하여 교배 방법을 개발하여 근모계수를 높임이 필요하다.

## 5. 번식기 사슴 관리

가을철이 번식 계절인 사슴은 이 때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 발정, 임신, 수태의 과정이 크게 좌우되므로 사슴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암사슴에게 교미 1~2개월 전부터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두과목초(豆科牧草)같은 품질을 개선한 좋은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해 주면 발정이 빨라지고, 전사슴이 발정이 일정하게 되어 교배, 분만, 새끼 사육 등의 관리에서 노력이 절감된다. 그리고, 수태율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쌍둥이 새끼를 낳는 율도 훨씬 높아진다.

또한 수사슴도 번식 계절에 대비해서 반드시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방목중인 수사슴을 번식 계절 2개월 전에 암사슴과 분리시켜 영양 상태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를 테면 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충의 질이 좋아야 하며, 종록의 외모, 혈통이 우수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료의 품질과 사양(飼養)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도 정력 과잉으로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수사슴의 사료는 건조가 잘 되고 수분의 함유량이 알맞아야 하며,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발정기에는 암사슴을 쟁탈하기 위한 수사슴끼리의 싸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슴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칫 상처가 날 경우에는 사슴의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싸움을 방지하

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 6. 거세(去勢)

거세란 주로 수놈의 정소(精巢), 즉 고환(睪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수술방법으로는 절개방법(切開方法)과 폐쇄방법(閉鎖方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거세 목적에 따라 완전 거세(完全去勢)와 부분거세(部分去勢)를 하게 된다.

사슴의 거세 시기로는 봄철이 가장 좋은 시기로, 이 때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시기이고, 고환에서 정충이 생성되지 않는 때일 뿐만 아니라, 고환에 혈액이 다량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 시기에 음낭(陰囊)을 수술하면 출혈이 심하지 않다.

시술은 가급적 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술칼, 수술가위, 명주실 등을 열탕소독해 둔다.

절개시에는 사슴을 땅 위해 눕히고 뒷다리를 벌리게 하여 위로 올리고 목은 어깨에 가까운 쪽을 줄로 묶어서 보정한다. 완전히 보정하였으면 시술자(施術者)는 수술 부위를 가급적 넓게 소독한다. 이 때 시술자의 손도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한다. 음낭은 소독하고 닦은 후에 요오드팅크를 바른다. 왼손으로 음낭의 밑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표피 고환막(睪丸膜)을 절개한 후에 고환을 꺼낸다.

수술 후에는 탈지면이나 가아제로 닦고 회석 옥도정기나 머큐러크롬을 바르며 설퍼마이드 연고를 바르면 안전하다. 주의할 점은 소독의 불완전으로 인해 파상풍(破傷風)이나 화농(化膿)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세한 사슴은 깨끗한 방에 넣고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주며, 수술 부위를 1주일 정도 자세히 관찰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세방법보다는 고무밴드 같은 것으로 음낭을 꼭 매두어 자연적으로 위축되어 폐쇄(閉鎖)시키는 방법을 쓴다.

## 7. 임신(妊娠)

### (1) 징후(徵候)

암컷이 수태하면 발정의 회귀(回歸)는 없어지고 거동, 성질, 식욕 등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다.

외음부, 질점액의 양이나 성상(性狀)도 변화를 임신의 징후라고 하며 임신의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발정이 있어 교배를 한 후 3주일 지나도 다시 발정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임신이라 볼 수 있다.

② 성질이 바뀌어져 온순해지며, 날이 감에 따라서 거동이 둔해지며 동작이 신중해지고 그늘에서 드러눕는 것을 즐기게 된다.

③ 영양 상태가 변한다. 식욕이 증진하고 살붙임이 좋아진다. 피모(被毛)에 윤기가 흐른다. 그러나, 임신 중반 무렵부터는 태아의 발육이 왕성하여지기 때문에 어미 사슴의 영양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

④ 배가 커진다. 태아가 자람에 따라서 복부가 커지는데 공복시에 보면 판정할 수 있다.

⑤ 유방이 커지며 젖이 나온다. 초산(初産)의 차이, 개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분만이 다가옴에 따라서 유방이 점차 팽대해져 긴장하게 된다. 유두(乳頭)는 식별키 어렵지만 유백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고 4개의 유두가 있는 부위는 털에 덮여 있으나 임신이 되면 그 근방이 넓어지고 털 없는 부분의 윤곽이 선명해진다. 분만 며칠 전 젖

꼭지를 짜보면 황백색의 질은 초유(初乳)가 나온다.

⑥ 외음부와 그 부근이 충혈한다. 임신 말기가 되면 외음부와 그 부근이 충혈·홍조되어서 부어 오르며, 골반(骨盤) 주위의 조직도 충혈되므로 유연해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산도(産道)의 확장에 편리하다.

⑦ 임신 말기에 태동(胎動)을 감각할 수 있다.

⑧ 임신한 사슴은 많이 먹고 누우면 호흡에 불편을 느낀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무렵 잠깐 중단하였다가 몰아 쉬며 끄끙 앓는 소리를 낸다.

⑨ 임신이 되어 복강내에 태아가 커지게 되면 앞다리나 뒷다리를 당겨 간출하게 겨안지 못하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전부 쪽 내뺀고 있게 되며, 말기가 되어 갈수록 간출하게 앉지 못하게 된다.

⑩ 임신 말기에는 서 있는 앞다리와 뒷다리의 간격이 벌어지고 앞, 뒷다리를 서로 벌리고 서므로 앞다리의 수직형이 유지 안되는 때가 자주 있다. 말기에는 과중한 체중으로 인해 용허리가 되고 굽어 늘어진다.

## (2) 임신한 사슴의 관리

겨울에서 이른 봄에 걸쳐 임신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사슴은 계절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아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기르는 것이 된다. 하지만 암사슴은 사료의 공급이 좋지 못한 겨울철에 대한 적응이 잘 되어 있어 사료의 생산량과 품질이 좋은 봄·여름에는 영양소를 체내의 피하조직, 엉덩이, 내장 등에 대부분의 지방을 축적하였다가 임신 기간인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 기간 중에 조사료(粗飼料)에 어분(魚粉), 대두박(大豆粕)과 같은

단백질 보충 사료와 광물질 사료를 급여하면 분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새끼사슴의 발육이 좋아진다.

암사슴은 임신을 하게 되면 거동이 신중하여지고 스스로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사육자도 주의하여 질주(疾走)시키거나 원거리를 걷게해서는 안된다. 운동장 안에서만 방목하며 일광욕을 충분히 시키고 혈액순환이 순조롭도록 매일 솔로 가볍게 쓰다듬어 준다.

과도한 비만(肥滿)은 분만을 곤란하게하므로 주의하고 적당히 산책(散策)운동을 시킨다. 사료는 충분히 음미하여 부패발효(腐敗酸酵)한 것을 주어서는 안된다.

분만이 가까와지면 깔짚을 깔은 분만실로 옮겨서 안정시키도록 한다.

## (3) 태아의 발육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면 세포 증식을 계속하여 태아가 발육하게 된다. 그 당초에는 자궁내의 분비물인 유백색의 점조(粘稠)한 단백질이 많고 지방, 당류를 함유하며, 임과구(淋巴球), 탈락상피(脫落上皮) 등이 섞인 이른바 자궁유(子宮乳)에 의한 조직영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윽고 태막(胎膜)이나 태반(胎盤)이 생기면 태반순환을 통하여 영양과 산소가 공급된다. 태아의 체내에 생긴 노폐물이나 탄산 가스는 탯줄(臍帶)의 혈관을 통하여 태반을 중개로 해서 모체의 정맥 속으로 보내어지는 혈액영양이 분만일까지 계속된다.

이 동안 태이는 태막에 싸여 있고 맥락막(脈絡膜)에 융모(絨毛)가 생겨서 태아태반을 형성한다. 이 융모는 자궁내막에 생긴 어미태반으로 박혀 들어가서 태반순환이 이루어진다.

태아는 요막(尿膜), 양막(羊膜)안에 있어서 양수(羊水)속에 떠있기 때문에 태아의 각부는 유착(癒着)이나 압박을 받지 않고 운동이 자유로와 균형이 잡힌 발육을 한다. 또 태어나 탯줄이 외부에서의 압박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한편, 분만시에는 이 막이 터져서 양수가 흘러 나와 산도를 적시어 태아의 만출(娩出)을 용이하게 한다.

#### (4) 임신기간

사슴의 임신 기간은 품종과 개체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으며 같은 품종 내에서도 영양 상태와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교배 시기를 개체별로 기록장에 적어 두었다가 분만일이 가까와지면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여 사슴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각 사슴의 임신 기간은 제3장 사슴의 종류와 특징을 참고하면 된다.

## 8. 분만(分娩)

### (1) 분만전의 준비

① 출산 예정일이 가까와지면 다른 사슴과 격리시킨 후 녹사(鹿舍)안에 분만실을 만들어 분만 1~2일 전에 수용시킨다.

② 분만이 다가오면 유방과 음부(陰部) 주위의 더러운 털을 깨끗이 닦아 주거나 깎아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상태에서 분만시키고 새끼 사슴이 젖을 먹기 쉽도록 한다.

③ 분만실은 마른 짚이나 건초를 15~20cm 길이로 잘라서 가급적 많이 깔아 주어 깨끗하게 하고 바닥은 말려 둔다.

④ 특히 추울 때는 틈바람이 새지 않도록 벽 틈을 막아 따뜻하게 한다.

⑤ 분만책(分娩柵), 사료통, 더운 물통,

깨끗한 마른 걸레, 비누, 탈지면, 윤활제, 소독약, 소독된 가위, 옥도정기(땃줄처리용) 등을 준비해 둔다.

### (2) 분만의 징조

분만이 가까와오면 정기적(2~3시간 간격)으로 둘러보며 임신한 사슴의 행동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분만을 도와 준다.

분만이 다가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징조가 있으므로 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① 분만 며칠 전이 되면 음부가 부어서 붉은 기를 띠고 경산(經産)사슴은 유방이 현저히 부풀어진다. 유두를 짜 보면 분비물이 나오는데 분만이 가까울수록 분비물의 농도가 짙어진다.

② 분만이 가까와지면 불안해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녹사 안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구석으로 가서는 앞다리로 깔짚을 배 밑에 긁어 모으기도 한다.

③ 다시 때가 되면 드러눕거나 일어서거나 하며 작은 울음소리를 내거나 머리를 돌려 복부를 불안한 듯이 바라보거나 한다. 이럴 때에 분만은 가깝다.

④ 현저히 부풀어진 배가 아래로 처진다.

⑤ 허리나 골반의 근육이 느슨해지고 꼬리 기부 양쪽 살이 현저히 들어간다.

⑥ 음부는 늘어져서 붓고 점액이 흐른다.

⑦ 식욕이 떨어지고 소변을 자주 본다.

⑧ 분만 전후에는 신경질이 되어 흥분하기 쉬우므로 사육자 이외에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 (3) 진통(陣痛)과 분만

질은 흰 풀 모양의 액체를 배설하다가 이어서 불투명한 난백(卵白)과 흡사한 점액이 나온다. 이와 같은 상태라면 분만이 가까와졌다고 보아도 된다.

① 분만직전에 우선 진통이 시작된다. 최초의 진통은 예비진통(豫備陣痛)이고 자궁경관(子宮頸管)이 벌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어서 개구진통(開口陣痛)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것이다.

② 다음에는 강렬한 출산진통이 3~4분 간격으로 되풀이 되며, 이럴 때마다 용(勇)을 쓰게 된다.

③ 이윽고 태포(胎胞)가 나온다. 이 태포 속에 태아가 떠 있으므로 소중히 다룬다.

④ 강렬한 진통이 계속되면서 태아는 자궁경관으로 밀려 나온다.

⑤ 태포가 터지고 태아를 뜨게 했던 양수가 배출된다.

⑥ 태아의 앞다리의 발굽 끝이 노출된다. 이때 진통이 멎으면 재차 도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는 수가 있다.

⑦ 다음의 진통에 의해 앞다리의 발굽이, 다음에는 코, 얼굴, 앞몸, 뒷몸이 나온다. 정상적인 분만에서는 앞다리의 끝이 보이고 난 뒤부터 분만 종료까지는 30분 정도이며 그 이상 시간이 걸릴 때는 조산(助産)이 필요하게 된다.

⑧ 분만이 끝나면 얼마 있다가 어미사슴은 일어나서 새끼사슴을 핥기 시작한다. 이때 탯줄은 자연히 끊어진다. 얼마 후에는 새끼사슴은 일어나서 어미에게 접근한 후 젖꼭지를 찾는다.

정상 분만시 출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한 진통이 시작된 후 1~3시간이고, 출산 후 1~5시간 후에 후산(後産)이 나온다. 분만이 끝나고 자궁내에서 혈행(血行)이 두절(杜絶)되면 태반이 위축하고 진통과 함께 이탈하는 것이 후산이다.

#### (4) 조산(早産)과 난산(難産)의 조처

분만이 정상일 때는 조산(助産)할 필요는 없다. 다만 놀라지 않도록 떨어져서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① 탯줄은 분만 후 자연히 끊어지지만 어미사슴이 일어서지 못하거나 하여 끊어지지 않을 때는 탯줄의 기부에서 10cm전후의 가늘고 잘룩한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훑은 후 그 부분을 절단하고 옥도정기를 바른다.

② 분만후 어미사슴은 새끼사슴의 몸 표면에 부착한 점액을 핥아 먹는다. 그러나 쌍둥이나 3쌍일 경우, 때로는 1마리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비구부(鼻口部)주위에 부착한 점액을 신속히 닦아냄과 동시에 깨끗한 걸레로 몸 전체를 문질러서 원기를 돋우어 준다. 그후 신속히 새끼사슴을 어미사슴의 코 앞에 놓아 핥아 주게 한다.

③ 분만 직후 가사상태(假死狀態)의 새끼사슴은 흉부(胸部)를 가볍게 두들기거나 콧구멍으로 공기를 불어 넣거나 해서 자극을 주면 호흡을 시작한다.

④ 음순(陰脣)사이에서 발끝이나 코끝이 노출되면서도 용이하게 분만되지 않을 때, 태아가 산도(産道)의 정상위치를 지나가지 않을 때, 태아가 과대 발육하였을 때, 산도가 너무 좁을 때, 쌍태아가 동시에 산도를 나올때, 태수가 일찍 파열되는 등으로 해서 난산이 되는 수가 많다. 이럴 때는 조산, 즉 분만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초보자는 신속히 경험자나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산일 때는 사육자는 손톱을 깎고 손과 손목을 연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후에 와

셀린이나 세수 비눗물을 발라 매끄럽게 한 다음 사슴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질(膣)내부에 손을 오므려서 넣고 태아의 위치를 살핀다. 이 때 어미사슴을 분만실 모퉁이에 놓고 태아가 자궁쪽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뒷다리쪽을 높게 한다.

새끼사슴을 끄집어 내는 때는 앞다리를 잡고 어미사슴이 진통할 때에만 서서히 유방 쪽으로 당기면서 어깨를 꺼낸다. 단숨에 꺼내서는 안된다. 사육자 혼자서 조산(助産)할 경우에는 사슴을 오른쪽이 밑으로 향하도록 누인 후에 작업을 한다.

역아(逆兒)의 경우는 뒷다리가 먼저 나오므로 우선 새끼사슴을 자궁내에 밀어 넣고 정상위치로 고친 뒤에 만출시킨다. 다리나 목이 구부러져 산도에 걸려서 난산이 된 경우에도 일단 밀어 넣고 이것을 편 다음에 분만시키면 비교적 용이하게 만출시킬 수가 있다.

#### (5) 분만 후의 관리

난산이 아닌 순산(順産)이라도 어미사슴은 몹시 지쳐 있고 갈증과 흥분상태에 있으므로 더운물에 밀기울과 소량의 식염을 가한 것을 준다. 찬물은 자궁경(子宮頸)이 수축되어 후산정체(後産停滯)를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더운물을 급여해야 한다.

출산의 과정이 후산까지 완전히 끝나면 더러워진 깔짚을 다시 갈아 주고 더러워진 몸의 부분(유방, 생식기)을 더운 물로 씻어 준다.

사료는 점차로 늘려 주며 출산 후 2~3주일 동안의 비유량을 측정하여 사료의 급여량을 정하도록 한다. 분만 당일엔 더운물에 밀기울과 옥수수 분말, 식염을 섞어 급여하

고, 3일 정도부터 소량의 농후사료를 급여한다.

출산된 새끼사슴은 코에 묻은 끈끈한 태수(胎水)를 준비한 걸레로 닦아주어야 호흡에 지장 없이 일어나 활동하며 젖을 찾는다. 빠른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질식하여 사망하는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젖배를 꿩으면 죽는 수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젖을 먹을 때 도와주어야 한다.

난산으로 새끼사슴이 쇠약하여졌을 때는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마른걸레나 연한 건초로 마사지를 해서 호흡을 자극해 준다.

추운 지방에서의 새끼사슴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적당한 상자에 짚을 깔아 놓고 두꺼운 모포(毛布)로 덮어 틈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野生動物病院長)

